

# 황우석 논문조작 지휘... 김선종 시료 조작

서울중앙지검이 12일 발표한 증거보고서 등 문조작 사건 수사결과에 상세한 조작 경위를 밝힌 점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수사권이 없는 학내기구인 서울대 조사위의 1월10일 발표는 '논문이 조작됐다'는 학문적 결론에 그쳤으나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세부까지 파헤쳐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 범위 밖이었던 황 전 교수팀의 연구비 횡령과 난자 불법조달 등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내놓았다.

▲NT-1 조작부터 황박사 개입 = 서울대 조사위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줄기세포 NT-1에 대해 데이터 조작 사실을 밝혔으나 구체적 조작 경위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전 교수가 난자제공자 체세포 시료를 2개로 나누어 보내도록 연구원들에게 지시하는 수법으로 DNA지문검사

## ■ 검찰 '줄기세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연구비 횡령·난자 불법조달 등 새로운 사실 드러나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데이터인 NT-1의 DNA지문검사를 아예 하지 않고 논문을 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대 조사위가 밝혔던 NT-4~12번 조작과 똑같은 수법이다.

▲김선종 '섞어심기' = 검찰은 김선종 연구원의 허위 보고를 계기로 황 전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을 감행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줄기세포가 자꾸 죽자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배양접시에 섞어 심었고 허위보고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NT-2,3번 검사용 시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박사가 논문조작 총괄지휘 = 논문조작 지시 관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한 서울대 조사위와 달리 검찰은 황 전 교수가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모두 조작을 총괄지휘했음을 밝혀냈다.

황 전 교수는 DNA지문검사, 테라토마 형성검사, 배아체 형성검사, 면역적합성 검사, 배반포 및 줄기세포 확립성공률 등을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수사결론이다.

서울대 조사위는 권대기 연구원으로부터 "황 전 교수가 NT-4~12번 시료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황 교수가 이를 극구 부인해 해당 부분을 보고서에서 제외

한 바 있다.

▲'치너생식' 판단 유보 = 서울대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NT-1이 치너생식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와 마찬가지로 NT-1이 치너생식의 산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과학계의 몫"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NT-1 최초 실험 주체가 박운순 연구원이라고 판단한 점은 검찰수사에서 서울대 보고서 내용과 달랐던 부분이다.

▲미즈메디팀 조작 사례 = 검찰은 서울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던 김선종 연구원 등 미즈메디병원 연구원들의 다른 연구 조작 사례도 밝혀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지시로 개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작업을 맡았으나 이때도 엉뚱한 세포를 섞어넣은 뒤 허위로 보고해 실험 실패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길기자 cki@

## 5·31 지방선거 현장

### 서법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서법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14일 오후 5시 순천시 연향동 GS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김혁규·조배숙 최고위원, 지역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와 당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개소식은 5·31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겸한 축제로 진행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행복복지사회 전남CEO 서법석'이라고 새겨진 현판을 증정, 승리를 당부하며 꼭 지점연설 실현도 펼쳐진다.

### 한나라당, 5·18모지 참배

○한나라당 중앙당 및 광주시당, 전남도당 당직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26주기를 맞아 12일 오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정화활동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5·18모지 정화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박희태 국회부의장과 김영선 최고위원, 허태열 사무총장, 안재홍 광주시장위원장, 전남지사 후보인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 한영광주시장 후보 등 200명이 참석했다. 박재순 후보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중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정중해 민주당 보성군수 후보는 12일 보성을 선거사무소에서 신중석 의원을 비롯 당원과 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 후보는 이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보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철써 정치인을 심판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 사는 보성을 만들

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협조 및 전남도와 연계가 중요하다"며 예산행정전문가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 보성 민주당원 2천여명 탈당

○보성지역 민주당원 2천여명이 11일 무소속 지지를 선언하며 집단 탈당했다. 민주당원 모임인 '보성사랑회'는 이날 "정통 민주당원들을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고 당원·당구마져 무시한 채 경선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는 등 공당(公黨)으로서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민주당을 떠나 하승완 군수를 비롯한 무소속 후보들을 당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보성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는 '박주선 죽이기'와 민주당 흡입대기'를 위한 음모"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황주홍 후보 공천반납 안한다

○공천접수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비판하며 '민주당 공천 자진반납과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왔던 황주홍 강진군수는 12일 "민주당에 남아 군민들의 선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보름 이상 고민을 해왔지만 많은 지지자들의 반대와 광주·전남 민주당 후보들에게 안겨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부담, 난무하는 흑색선전 등 때문에 공천 자진반납의 뜻을 접었다"며 "하지만 공천과 관련해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지금도 그대로며 다만 그 뜻의 정치적 표현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강진지역 정치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주범은 정당공천제"며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선 시민단체와 협력해 낙선운동을 펼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납작한 공천을 정식으로 문제삼고 지방정치인으로서 중앙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보성=안규필·강진=이병철기자 mood@

## 돈세탁·연구비 빼내 부인 車 구입

### ■ 황우석 박사 횡령 실태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 1억9천266만원과 민간 연구비 6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지원금 횡령·부투명 집행 = 황 박사팀은 과학기술부에서 240억원, 정통부에서 43억원, 교육부에서 4억 500만원 등 총 287억 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중 164억 4천400만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황 박사가 2004년 11월~2005년 4

월 과거부 지원금 중 돼지(494마리) 구입비 1억 9천266만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쓰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찾아냈다.

▲한치기·돈세탁·부인 차량 구입 = 검찰은 황 박사가 2005년 9월 재미교포 강모씨의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한 뒤 그해 11월 미국에 가서 강씨에게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한치기 혐의를 적발했다. 황 박사는 각종 민간지원금을 마구잡이로 혼합 관리하는 운영통장에서 2001년 8월 1억 4천여만원, 2002년 3월 224만원을 인출해 후원자들에게 줄 담배용 선물을 샀고 특히 2004년 9월 부인 명의의 SM 5 승용차 구입대금에 2천688만원을 썼다. /연합뉴스



"우리 아이 영어교육 어떻게..." 12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에서 개최된 '미국교육박람회'의 '우리 아이 영어 지도법 학부모 워크숍'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

### "DJ납치, 이후락 지시 확실" 주한미대사관 비밀문서 공개

주한미대사관은 지난 1973년 10월10일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김대중 납치사건'을 지시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승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던 것으로 지난 11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미 국가정보기록보관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1973년도

비밀 외교문서' 가운데 주한미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서 드러났다.

73년 8월8일 발생한 납치사건 당시 도쿄 현장에서 주일한국대사관 김동운 서기관의 지문이 발견돼 중앙정보부의 개입 및 박 대통령의 관련 여부가 국내는 물론 한일 간 첨예한 쟁점이 됐으며 지금껏 핵심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사건 직후부터 한국 정부기관의 관련성을 주장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관련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시설

### 통일부 장관이 "6자회담 결렬불사" 한데서야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갈 데까지 가는 느낌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1일 한양대에서 특강을 하면서 "6자회담이 결렬될 지라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협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정부 안보관련 부처 고위관계자 회의에서도 '미국과의 다른 독자적 남북관계 해법을 마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조건없이 할 것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몽골발언에 이은 참여정부의 노선전리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대북문제를 책임진 이종석 장관이 공개적으로 6자회담 결렬을 선언하는게 현명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이래 우리의 대북정책은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는 햇볕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정부의 집권으로 이정책은 미국의 반대를 받아왔

다. 이때부터 우리가 취한 정책은 맹방인 미국을 설득하며 북한에 '조용한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노선이자 지구지긋한 안보위협을 최소화 하는 방책이었다.

북핵위기를 타개하자고 만든 6자회담의 최대이해당국은 한국이다. 아무런 미국 보수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6자회담 결렬불사를 말하는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한국의 통일부장관이 대미공중의 교를 안하겠다는 특강으로 대학생들의 박수를 받을 지는 몰라도 한미간 대북 정책이 '이견' 수준이 아니라 '대립' 수준임을 공식화 하는 이 발언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북핵 평화적 해결의 유일한 장외인 6자회담은 이제 더욱 재개가 어렵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정부의 집권으로 이정책은 미국의 반대를 받아왔

### '황우석 과문' 상처 딛고 생명공학 제도약율

검찰이 어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4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는 한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선종 연구원이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배양중인 서울대팀의 줄기세포와 섞은 뒤 마치 배아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측 결론이다.

맞춤형 줄기세포가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기다 희망을 가졌던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의 허탈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검찰수사로 황교수의 연구비 28여억원 횡령사실도 밝혀졌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생명공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황교수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과문을 접고 줄기세포 연구의 새출발을 다져야 한다. 세계 줄기세포 허브로 부상하려던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우리가 황교수 소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머뭇거리기 사이 영어나 미국 등 주변 경쟁국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공학 연구 수준이나 저변은 아직 탄탄하다. 논문 조작을 밝혀 낸 것도 국내 젊은 과학도들이었다.

줄기세포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나 학계가 힘을 모아 야야 한다. 범 정부 차원의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 발표도 서둘러야 한다. 예산 지원시스템 정비나 애매모호한 생명윤리 연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 역시 시급하다. 기초과학분야 과학자들이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때다.

## 與野 '5·18 광주'서 선거운동 스타트

### 우리당 지도부·후보 총집결 호남민심 되찾기 총력

### 한나라 '대선 승리 교두보 확보' 이례적 선대위의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나란히 광주에서 '선거필승의 문화'를 전파한다. 우리당은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나라당은 불모지 개척을 위해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호남 표심의 영향력이 높은 수도권외의 경제 성장지사 후보와 강급실 서울시장 후보 등은 광주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5·18 기념일인 18일에 맞춰 대구 광주에 집결한다. 당 관계자는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정신과 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일맥상통한다"며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광주에 모여 5·18 정신의 계승을 다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의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18 전야제부터 참석토록 하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참석 여부는 본인들의 결정에 맡길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우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정체된 것은 호남 민심의 이반 탓이 크다는 분석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의 첫 테이프를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에서 끊는다는 것 자체가 호남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나라당=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광주로 총집결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5·18 행사에 참석한 뒤 광주시당으로 자리를 옮겨 선대위의회를 열어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전의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광주 지역 유세로 선거운동을 스타트한 뒤 다른 지역 일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핵심당직자는 "광주에서 선거운동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한나라당이 호남에 부여하는 의미가 각별하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5·18 기념마라톤이 열리는 오는 14일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원희룡 최고위원 등이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당 후보 지지율을 두자리수대로 끌어올려 내년도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광로동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회 2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빛의만평

- 김중두



시름 달래줄 유일한 희망!

### 민주광주시·구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

민주광주시당은 12일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에 조광항(여·62)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선정하는 등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명단(표 참조)을 발표했다. 유종필 시장위원장은 "여성과 외부 영인인사를 우대했고, 전문성과 당 기여도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구속

현대차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2일 현대차 그룹에 땅을 매각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5년 11월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하나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에 66억2천만원에 팔고 그 해 12월 김동진 현대차 그룹 총괄부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 민주당 광주시 비례대표 후보

선거구	이름	나이	직책·경력
광역의원	조광항	62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남일	61	전 한광대학교 총장대행
	송은미	39	조선대 겸임교수
	고재창	52	전 광주시지부 사무처장
	남순심	51	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동구	조세철	47	광남로 지하상가 변영회장
	유해자	62	이화여대 총동문회 광주·전남지부 차기회장
	황헌택	46	광주시당 부위원장
	김수영	41	광주시당 여성국장
	박예훈	57	대한어머니회 광주남구지회장
기초의원	반정환	54	남구 사무국장
	김영자	57	전 국제외의즈본 여성클럽 회장
	김순래	63	광주시의원
	송광수	56	북구의원
	문태국	43	경찰관 집행위원
광산구	선덕희	65	광산장학회 이사
	성재수	53	광주시당 부위원장
	김금주	49	여성중앙회 광산지회장